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 하반기 공개 확정! 대세 배우 '임시완'과 '열혈사제' 이명우 감독 만났다!

2023. 8. 17.



-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 2023년 하반기 공개 확정!
- 임시완-이선빈-이시우-강혜원, 다채로운 캐스팅 라인업 공개!
- 쿠팡플레이 시리즈 <어느 날>에 이어 이명우 감독과 쿠팡플레이의 두 번째 만남!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가 올 하반기 공개를 확정 짓고,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소년시대>는 1989년 충청남도, 안 맞고 사는 게 일생 일대의 목표인 외톨이 병태가 어느 날 부여 일장으로 둔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쿠팡플레이 시리즈.

먼저, 배우 임시완은 전학 첫날 부여 일장으로 오해 받게 된 외톨이 '장병태' 역을 맡았다. 영화 <변호인>으로 데뷔와 동시에 천만 배우에 등극하고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비상선언>을 통해 칸 영화제를 매료시켰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미생> <런 온><트레이서> 등으로 스크린에 이어 브라운관까지 섭렵한 실력과 배우 임시완은 소심함과 대범함을 오가는 극과 극 반전 매력을 선보이며 또 한 번의 인생 캐릭터 탄생을 예고한다. 여기에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에서 개성 있는 연기로 존재감을 각인시킨 이선빈이 부여의 흑거미 '박지영' 역을 맡았고, 탄탄하게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는 신예 이시우와 강혜원은 각각 일대 학교를 평정한 아산 백호 '정경태'와 모든 남학생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고생 '강선화' 역을 맡아 궁금증을 더한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는 드라마 <열혈사제><편의점 셋별이>, 쿠팡플레이 시리즈 <어느 날> 등 수많은 인기작을 탄생시킨 흥행 메이커 이명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올해 6월부터 촬영을 이어 나가고 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1980년대의 부여 농고를 배경으로 한 <소년시대>는 하루 아침에 학교 일장으로 둔갑해버린 고교생 '병태'의 고군분투를 담은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친근하고 해학적인 충청도식 유머를 통해 지금껏 본 적 없는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대세 배우 임시완과 흥행 메이커 이명우 감독의 만남으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소년시대>는 올해 하반기 쿠팡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FORMATION

제목 : 소년시대

제공 : 쿠팡플레이

감독 : 이명우

극본 : 김재환

출연 : 임시완, 이선빈, 이시우, 강혜원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